

사탄의 무릎을 꿇리는 온전한 예배와 십일조

- 복음으로 여는 말라기 -

말3:7-12, 마23:23

정윤돈 목사님

오늘은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핏박을 한다면 목숨 걸고 교회 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전 세계에서 창궐하고 있다. 모델적으로 우리가 예방을 잘 하고 있고, 미리미리 찾아내서 예방을 하고 보호를 하다 보니,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 세계에 사실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다. 한국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적 시스템이나 나아가 백신까지 만들어서 다른 나라도 도울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 수준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영적인 부분도 성장해야겠다. 눈으로 보이는 바이러스는 무서워하지만, 영적인 바이러스는 걱정하지 않는다. 육적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 질병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를 치유하는 민족, 세계복음화 하는 민족으로 준비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서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사탄의 무릎을 꿇리는 온전한 예배와 십일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 한다.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주의 사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이다. 말라기는 성전재건 후 약 100년 후(약 BC 425년)에 기록된 말씀이다. 간단히 역사를 설명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떠났다. 그래서 바벨론에 1,2,3차에 걸쳐 포로로 끌려간다. 근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된다. 근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포로에서 자기들의 땅으로 귀환하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1차,2차,3차에 걸쳐 귀환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귀환 시킨 것은 성전, 제사, 신앙을 회복하라고 보낸 것이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하려다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짓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같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거부한다. 사마리아가 페르시아 왕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들먹이면서, 이스라엘은 말을 듣지 않는 민족이기에 성전을 짓게 하면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16년간 성전건축이 멈춘다. 나중에 학개, 스가랴에 의해 성전건축이 다시 촉구 된다. 그래서 주전516년에 성전이 완성된다. 말라기서는 여기서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주전 425년에 기록된 글이다. 즉 말라기서는 성전이 회복 된지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강대국의 속국으로 지내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쓴 글이다. 낙심하고 불신앙 하여서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제사장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이 말라기서이다. 먹고사는 것에, 세상일에 관심이 너무 많은데 예배, 교회의 일에 형식적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문을 닫아라, 나는 이런 예배를 원치 않는다."

한국의 성도들이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다. 예배보다 노는 것, 여행, 술, 담배, 타락, TV 영화 보는데, 밤새 드라마도 본다. 그런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예배는 너무너무 형식적이게 드린다. 그러면서 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신 적이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무미건조하고 황폐한 영적 상태였다. 주일 예배에 나오긴한다. 근데 중심이 바르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즉, 참된 예배와 헌신 회복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을 치유할 것이고, 사탄의 세력을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다. 말라기 4장3절 말씀을 보자. "또 너희가 악인(사탄)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온다.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진정으로, 중심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기가 마음에 들면 이 교회 가고,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가고, 가까우면 교회 자주 가고, 불편하고 바쁘면 안 가고, 문제 생기면 오고, 문제 안 생기면 와서 줄고, 내 뜻이 관철되면 열심인데, 인정 못 받으면 빠진다. 이런 모습이 대부분이다. 신천지에게 속아넘어가고 신천지에게 끌려갈 수 있는 영적상태이다. 신천지의 90%가 기혼신자이다. 지난주에 말씀 드렸지만 정상적으로만 신앙생활 해도 속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질문하면 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신앙생활과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어떻게 믿어야합니까?' 한 번도 제대로 질문 한 적이 없다. 관심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 밖에 없다.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주시고, 400년 동안 말씀을 끊어버린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다. 지금이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다. 반대로 말하면 마지막 기회이다. 말할 때에는 결론이 아주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는 마지막 말이고 결론과 같다. "참된 예배와 헌신이 회복되지 않으면, 말씀도 교회도 끊어버리고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이다. 인간관계도 몇 번 경고하다가 말이 안 먹히면 관계를 끊지 않는가? 이런 중에 여러 가지를 잘 깨달아야한다. 각성해야한다.

말라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1) 이스라엘백성들의 잘못들에 대하여 경고하기 위해서이다. (2)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알려 주기 위해서이다. (3) 십일조의 참된 의미와 축복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려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 주셨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항상 감사할 일이 더 많다. 온전한 예배와 헌신을 통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란다. (4)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참선지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1.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유

그래서 먼저 큰 첫 번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더러운 떡을 드리고, 병든 짐승을 제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흠 있는 제물을 뇌물을 받고 통과시켜 주었다. 이방혼을 하였을 뿐 아니라, 부인을 학대했고 이혼을 쉽게 하였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았다.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경고라는 것은 좋은 의미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엄청난 사고와 질병과 징계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영적인 경고는 너무나도 무시한다. 예배를 등한히,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목회자의 말을 우습게 여긴다. 교회를 쉽게 옮긴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들은 무엇이였을까? 우리는 이것들을 사탄이 가져다준 12가지 문제 때문에 발생한 옛 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1) 하나님의 사랑을 모름

말라기 1:2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기준이 틀렸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육적 어려움을 주시지만, 경고도 주시고 체책도 주신다.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신다. 경고를 가볍게 생각지 말라. 원망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 붙잡고 감사하는 것이다. 기준이 바뀌시길 바란다. 요삼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2)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여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 증거로 심지어 제사를 드릴 때 더러운 떡(우상제물)을 드렸다. 말 1:6-7에 나와 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나 만군의 여호와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와 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3) 백성들은 흠이 많은 짐승들을 제물로 드렸다.

그 내용이 말라기 1:8 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직장상관)에게 드러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교회 일꾼이야 대충해도 되고, 세상일은 우선이야. 그러면서 교회를 쉽게 비난한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최고로 멋있게 드려야겠다.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다. 그 중심을 가진 몇몇 후대가 있어서 회복되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 중에 그러한 응답이 있으시길 바란다. 이 사회도 개혁되어야한다. 방법은 후대가 일어나야한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후대가 일어나야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흠이 없는 중심, 믿음의 길, 교역자의 길 가시길 바란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재앙이 온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가 잘하면 다 북

을 받고, 우리가 못하면 다 재앙을 당한다. 그들은 이제 정성도 진실함도 없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던 것이다.

4)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이혼과 재혼을 쉽게 하였고 아내를 학대하면서 자신을 포장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았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윤리가 무너진 것의 최고의 결과이다. 연애 자체가 이혼을 할 정도로 선택을 한다.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연애를 한다. 이상한 가문을 만난다. 심각한 시대이다. 오늘 우리와 다른가?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교회고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란다. 말라기 2장15절로 16절에는 당시 상황이 잘 나와 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웃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2. 하나님의 새 틀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새 틀은 무엇일까?

1)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말라기 1장10절에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헤뜨는 곳에서부터 헤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 언약의 말씀이 237복음화이다.

2)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

타락한 시대를 고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다. 이 사자를 "너희가 사모하는바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분이 4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말라기 3장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는다. 그리고 영원까지.

3)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회복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은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을 회복하는 것이다. 말라기 3장10절에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십일조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다. 십일조가 큰 돈이다. 그래서 의미를 잘 알아야한다. 의미를 모르면 너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은혜가 되면 너무나 감사해서 드릴 수 있다.

(1) 십일조의 의미이다. 십일조란 내 소득의 열 개중에서 한 개를 헌금으로 드린다는 의미이다. 십일조를 드리는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 또한 하나님의 장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었다는 '구원의 고백'을 담고 있다. 단지 돈만 내는 것이 아니다.

(2) 성경에서 말씀하는 십일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도 벨기세택에게 십일조를 드렸다. 구약율법에는 십일조를 드려야 하는 사실적인 현실적인 이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영적인 부분 뿐 아니라 형식적인 부분도 있다. 구약에서 십일조에 대한 규정을 주신 이유는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십일조로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었다. 신명기 14장27절에서 29절에 보면 십일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성도들이 십일조 안하게 되면 목회자가 생활이 어렵다. 신14:28-29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마태복음 23장23절 말씀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진정한 십일조는 전도자의 삶이 포함되어 예물을 드렸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더 많이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십일조 액수가 커지니까 자기가 그 돈으로 선교헌금 한다. 그게 교만이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3) 다음은 지금 우리들이 십일조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십일조를 계산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십일조를 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십일조를 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 삶의 십일조, 회사의 십일조를 정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도 십일조 못하고 인생이 끝날 수 있다. 그렇다면 십일조를 누구나 다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할까? 헌금에 대한 기본은 고린도 후서 9장7절의 말씀을 따르면 될 것이다.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4) 십일조 응답의 증거들. 그러나 온전한 십일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란다.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얻게 될 것이다. 십일조를 온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수입을 얻은 즉시 가장먼저 십일조를 떼는 것이다. 이것만 지키면 영 육간에 소중한 많은 증거를 얻게 될 것이다.

4) 치료하는 광선

바른 믿음을 회복할 때 너희가 치료가 되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셨다. 말라기4:2 말씀을 함께 보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지금 전 국민이 갇혀있다. 나중에 전 국민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것이다. 우리를 통해 그 시간이 앞당겨질 기도한다. 오늘도 말라기서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발견하고자 한다.

결론 - 말라기서의 CVDIP

1.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이 말라기서를 통하여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적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사랑하면, 소중함을 알면 집중, 정성, 예물도 드릴 수 있다. 아까우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Vision이다. 우리들의 비전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복음을 237 나라에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3.Dream이다. 24시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 보시기 바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4.Image다. 우리들은 깊은 기도 속에서 교회와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회복되는 미래의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하겠다. 멋있는 성도들의 모습, 세상의 리더자가 되는 우리 후대의 모습의 그림을 그려보자.

5.Practice다. 이번 한주간은 내 자신을 점검해보시기 바란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예배를 진심과 정성을 다해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말씀을 듣고 정성을 읽고 기도와 온전한 십일조와 헌신의 예물도 드려 보시기 바란다.

* 미션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들에 실천해야 할 미션을 드리하고자 한다.

1. 한글복음소식 암송
2. 영어복음소식 암송
3. 복음성구 100구절암송
4. 전도대상자 300명 명단 정리
5. 기도수첩 영상메세지 정리
6. 900현장 정리
7. 전화 및 SNS 통한 심방, 다락방, 강단말씀포럼
8. 주일강단메시지 목상
9. 각 부서 부흥과 전도기획
10. 30명 영접 3명 교회화를 위해 집중기도
11. 신천지 등 이단연구
12. 매일 구원의 길 듣기, 쓰기, 읽기, 그리기
13. 혼자서 교회와 현장에서 하는 릴레이 기도
14. 24시간 금식기도 (낮12시에서 다음날 낮12시까지)

끝으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